외면(外面)특권

(창21:22~34)

27.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28.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2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찜이냐
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31.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32.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34.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외면 특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외면 특권(外面 特權)'
어제는 우리가 "대면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외면 특권입니다. 어울리지 않죠. 단어의 조합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외면이라는 단어는 마주치기를 꺼려서 얼굴을 피하고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상이나 이론, 내게 주어져있는 상황이나 현실, 엄연한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외시하는 것이 외면입니다.
이런 것이 외면인데 어느 시인의 시 중에 제목이 "따뜻한 외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외면이라는 것은 대부분 냉혹하거나 모질거나 이기적인 맥락에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외면이라는 시의 전반부만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비를 그으려 나뭇가지에 날아든 새가
나뭇잎 뒤에 매달려 비를 긋는 나비를 작은 나뭇잎으로만 여기고
나비 쪽을 외면하는
늦은 오후

하하! 시인은 시인이에요. 사물을 보는 관찰력이 대단합니다. 저는 시인들이 존경스러워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가 내려서 비를 피하려고 새가 나뭇가지에 날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나뭇잎 뒤에 나비가 비를 피하려고 매달려있었습니다. 나비가 매달려있는 그 나뭇가지에 새가 온 거예요. 새와 나비의 관계는 천적관계입니다. 나비가 나뭇잎 뒤쪽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 매섭게 바라보며 먹잇감으로 삼기 위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평소에 먹이로 좋아하던 그 나비를 나뭇잎으로만 여기고 외면하는 늦은 오후라는 것입니다.
비라는 공통된 어려움 앞에서 천적이 따듯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시인의 눈은 대단해요.

외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명박 전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나왔던 신문기사를 제가 기억합니다.
“미국 언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MB”
저는 이 명박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나 하는 일들을 마음에 썩 들어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 기사를 보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국내에서 비판할 수 있지만 외국에 나가면 다 우리 편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언론이 외면한다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외면하느냐?’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외면이란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열렬하게 구애를 하는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한다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게 외면인데, 도대체 이 외면에 특권을 가져다 붙이면 따뜻한 외면이 아니라 특권적 외면이 되는 것인데, 이런 특권적 외면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외면이라는 단어는 대면 특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권을 부여하신 자들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면 특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길이, 내가 세상을 외면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외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대면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이것저것을 보고 있는 중이거나 먼저보고 있으면서 뵐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다른 모든 대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외면함이 일어나야하는데 이것을 특권이라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을 때에 특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다른 모든 사람은 해야만 하는데 나는 안 해도 괜찮은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안 하면 큰일이 나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해도 괜찮아요. 이게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을 때에 특권이고, 다른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것을 안 해도 괜찮을 때에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면 특권과 맞물려 있는 이 외면의 반응은, 하나님이 대면 특권을 주셨다면 우리는 세상을 외면해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외면이 특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홱홱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가 세상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지금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업문제, 가정문제, 개인문제, 건강문제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특권이 주어지면 사업 현장에서 일이 발생하고 사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 사업을 외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사업이 안 되거나 잘 되거나를 막론하고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자손들은 외면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들 중에서도 이러한 외면 특권이 주어져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업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절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지요.
특권이 주어져있습니다. 아무도 못 해요.
가정에서 일이 일어나는데 가족들을 어떻게 외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 외면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외면 특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 특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업 현장에서 사업을 외면할 수 있었어요. 거기까진 좋아요. 그것이 특권인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사업에 대해 죽으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롯의 경우를 보면 롯의 아내가 소돔을 빠져나올 때에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내 재산이 어느 정도로 파괴될지가 궁금한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떠나도 괜찮을까?’라는 회의가 찾아온 것 아닙니까?
외면이 특권인데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외면해도 괜찮겠느냐?
옆의 사람들은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데,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대해 하나님만 대면하고 사업을 외면해버려도 괜찮겠냐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식에 대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투자하고 잘 길러보겠다고 애쓰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식에 대해서 외면하는데 자식의 인생이 괜찮겠느냐는 것입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적신호가 없을 때에도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난리를 치는데 나는 적신호가 켜졌는데도, 지금 내 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외면해도 괜찮겠냐는 것입니다.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감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특권입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6:31-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언약의 자손이 아닌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열심히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무엇을 먹고, 입을지에 대한 과제를 외면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이게 특권 아닙니까?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 자의 특권이 뭡니까?
대학생 때에 벌써 외제 스포츠카를 삽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특권이죠. 대학교 졸업할 때에 모든 대학생들이 다 직장을 구하느라고 전전긍긍할 때에, 직장을 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또 특권이죠. 안 해도 괜찮은 것이고 외면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이 외면 특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 앞에 펼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사라를 사이에 두고 있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을 잘 이끌어 주시고 평강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하죠.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냥 그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놔둬요. 그렇게 인정만하고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화친하자. 다시는 사라의 경우처럼 거짓말로 해를 끼칠 생각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비멜렉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면 되겠냐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을 막강하게 밀어주고 계시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따로 있으니 어쨌든 둘이서 화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친이 이루어집니다.

화친하면서 양과 소를 화친의 증거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런데 일곱 암양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소와 양을 자기에게 주는 것은 화친의 언약을 위해서 준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일곱 암양을 따로 구별해 둔 것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일상적으로 조약이나 동맹관계를 맺을 때에 일어나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앞에서 양과 소를 준 것은 일상적인 그 당시의 관습을 따른 것이고, 암양 일곱 마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왜 줬느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모르는 사이에 그 종들이 와서 우물을 뺐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지면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아비멜렉이 자기도 몰랐다고 인정을 하면서 그 우물을 가지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랄 왕이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 지역에서 우물을 판 것이므로 우물에 대해서 암양 일곱 마리를 주면서 그것을 사는 것처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여간 아브라함이 특이한 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호의(favor) 위에 자기 삶이 근거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이 북부 4개 연합국 왕들에 의해서 망했을 때에 잡혀간 롯을 구해오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에 소돔 왕이 전리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때에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애굽 왕이 사라 때문에 줬던 물건들은 다 받았습니다. 또 아비멜렉에게서도 사라 때문에 물건들은 다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로와 아비멜렉의 경우에는 사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아브라함을 봐서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재물들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의 전리품이나 오늘 아비멜렉이 우물을 주려고 하는 것은, 호의가 소돔 왕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압이나 개입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게 바로 외면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땅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근거된 것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현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산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라고 합니다.
이 '에셀 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강력한 나무입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 이유는 뿌리를 30m 아래까지 뻗어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넓지 않은 잎사귀가 비늘처럼 겹쳐있어서 잎사귀에서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고 수분을 담고 있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가장 강하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단단하고 키가 커서 어떤 것은 9m까지 자라요. 그래서 그늘이 아주 큽니다. 이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에 외면 특권을 결정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막은 생명현상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적대적입니다. 생명들이 살아날 수 없게 만드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인 사막에서 가장 강력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에셀 나무인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생명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평강의 절정을 이룹니다. 약속의 자식인 이삭이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잔치까지 벌였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사라를 언짢게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잘 이끄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서 안심이 됩니다. 이스마엘도 나이가 17살이 되었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지역에 와서 머무는데 아비멜렉이 먼저 와서 화친을 요청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판 우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땅에서의 삶의 형편이 안정과 평강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아니라,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삶이 이렇게 잘 된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과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시간의 흐름 밖에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는 세계인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왜 불러요?
애인이 미국에 갔을 때에 왜 미국에 전화를 합니까? 마음이 미국에 가 있으니까.
삶이 가장 안정되고 평강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일이 다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한 뜻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평강해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이 세상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
삶이 가장 평강하고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세상을 외면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요?
제단을 쌓아야 될 것 같은데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에셀 나무를 심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는 겁니다.
뭘 아느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외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막과 같습니다.
에셀 나무가 사막에서 보여주는 생명력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순간이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일이 끊어진다면 나는 죽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에셀 나무가 사막에서 30m까지 뿌리를 뻗어가면서 지하수로부터 물을 빨아들여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상이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지금 가장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인데 외면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삶이 가장 안정적일 때에 사람은 그 삶에 취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술 프로젝트예요. 취할 수밖에 없지요. 이제 누리고 향유하고 즐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땅의 것을 안정적으로 기가 막히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헌금이라도 내면 되는 거예

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안정과 발전과 번영의 절정에서 외면을 해버립니다.

이 에셀 나무가 십자가 나무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나무를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을 사막으로 보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을 생명현상에 적대적인 사막으로 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사정없이 방해하면서 치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이 내게 가장 강력한 사막의 기운을 몰고 오고, 아름다운 아내가 가장 강력한 사막의 기운을 뿜어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 위한 모든 특권을 말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나무인 에셀 나무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끊으려고 다가올 때에 십자가 나무를 붙잡고, 이 세상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절정으로 번영을 이루거나, 어려움에 처했거나 외면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외면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에셀 나무 대신에 제단을 쌓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계속 외면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땅의 삶의 형편이 지금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절정을 이룬 삶의 형편을 또 외면합니다.
롯과 롯의 아내를 보세요. 소돔을 찾아 들어갔고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뒤를 돌아봅니다. 외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외면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외면할 수 있습니다.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대면해서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라는 말씀이 들려서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하니 언약의 자손입니다.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니 특권이죠.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이 세상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으니 특권입니다.
그렇게 외면했는데 세상의 삶은 머리카락 하나 만큼의 오차도 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운 경륜 속에서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교한 사람들은 뭐냐?
순교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자기가 순교하는 이 상황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억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마음에 기쁨과 평강 가

운데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조급하셔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두지 않고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싶은 사랑 때문인 줄로 알고 받아들입니다. 순교로 요절을 해도 삶이 오차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일어난 일 중에 잘못 되어서 어긋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십자가 에셀 나무를 붙잡고 이 사막의 기운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세상을 외면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괜찮음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에셀 나무를 붙잡고 할 수 없는 외면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세상을 외면했는데도 괜찮은 외면 특권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에셀 나무에서 나의 외면 특권이 활짝 꽃 피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